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가이드답안
(오전)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및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1)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1-06]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미술』 교과 ‘(3)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듣기·말하기’ 부분에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사랑 대 러브(Love)」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클림트의 <철학>과 <의학> 그림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우직한 어리석음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감상적 읽기’ 가운데 ‘읽어 읽기’의 과제로 나온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류수열 외(2018), 『고등학교 국어』, 금성출판사, 125~126쪽.
- [나] : 이진민(2021),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 한겨레엔, 136~138쪽.
- 박영목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02~105쪽 관련.
- [다] : 고희진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92~93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역설’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역설’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가]는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추사 김정희는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내를 위해 시를 지었는데, 애끓는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자신이 아내보다 오히려 먼저 죽는 복수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가 지은 시에서 역설의 표현 방식을 접한 독자들은 통념이 전복되어 신선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왜 추사 김정희가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을 느껴 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하면서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나]는 클림트의 <철학>과 <의학> 그림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철학> 그림에서는 인간 이성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류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태초의 신비며 삶의 근원적인 불가해성이 강조된다. 지식이나 철학의 상징을 마치 안개 속 버드나무 귀신처럼 흐릿하고 몽환적으로 표현하여 인간 군상을 외면하는 듯한 감성을 느끼게 만든다. <의학> 그림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목적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조한다. 죽은 자들이 건넌다는 망각의 강, 레테를 배경으로 죽음들이 넘실거리며 모여 있다. 의술의 신 히기에이아는 레테의 강물이 든 접시를 들고 차가운 얼굴로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을 치료하는 따뜻한 나이팅게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악이 든 약사발을 들고 있는 상궁 마마님의 느낌을 준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다]는 우직한 어리석음이 세상을 변화시킴을 주장한 글이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온달을 선택한 평강 공주의 결단과 온달을 용맹한 장수로 만든 평강 공주의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달과 평강 공주 이야기가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한 청년의 우직한 총절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을 중시하고 이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고 소망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이러한 우직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경계해야 한다. 불편함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여기에는 수많은 소리와 풍경 등의 추억이 담겨 있으며 어딘가를 희망하며 쉬지 않는 것임에 반해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과 같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역설’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적 표현 방식을 설명한 이 글에서 추사 김정희는 먼저 죽은 아내를 위한 시를 지어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복수를 희망한다. 이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가슴속의 진정한 마음을 전한다. 역설의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통념을 전복시켜 신선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하게 하여 더 큰 감동을 얻도록 한다.

2번) 예시 답안

[나]는 클림트의 <철학>과 <의학> 그림에서 보이는 역설의 표현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철학> 그림에서는 철학이나 지식의 상징을 위대함이나 합리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흐릿하고 몽환적이며 인간을 외면하는 듯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의학> 그림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목적과 관련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죽음이 강조되도록 표현했다.

[다]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직한 어리석음이 역설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킴을 주장한다. 우직한 온달과 주체적인 평강 공주 이야기에는 사회와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 담겨져 있다. 현대 사회는 경쟁적 능력을 중시하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변화해 나가고, 이러한 우직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지혜와 능력의 바탕이고 내용이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아트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영국의 미술 작가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뱅크시(Banksy, 실명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가디언 언리미티드 기사에는 1974년생으로 밝히고 있다.)의 〈쇼핑하는 원시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는 예술을 걸치레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행위 예술을 통해 기존의 예술이나 사회적 권위를 비판(이를 ‘제도 비판 예술’이라고 한다.)하였다.
- 이에 착안하여 이 문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과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한 비평적 글쓰기 및 올바른 문화와 예술의 향유 태도와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통합적 인식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사회과’ 관련 교과에서 지문을 직접 추출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3) 문화와 일상생활’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에서 다루어진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과 주체적 수용 자세에 대한 교과 지식의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5) 문화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으며,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및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 ‘(3)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12미03-04]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으며,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플라톤 지음 / 천병희 옮김(2013), 『국가』, 숲, 175~177쪽.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158쪽 관련.

- [나] : 벨슨 굿맨 지음 / 김해숙·김혜련 옮김(2002), 『예술의 언어들 : 기호 이론을 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45~247쪽.
- 박영목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01~107쪽 관련.
- [다] : 안혜리 외(2018), 『고등학교 미술』, 지학사, 107쪽.
- [라] : 민현식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196~197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는 예술이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의 미적 체험을 통하여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감상자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술과 과학은 상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과학처럼 현실적 유용성에 기능하기보다는 심미적 경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은 실용적이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총동적이다.

[다]는 벅크시의 <쇼핑하는 원시인> 작품 전시와 노점에서의 작품 판매 행위를 통해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겉치레로 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문항 해설 2 (10점)

[다]에서 벅크시의 행위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작품 감상 능력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판단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에서 '좋은 문화'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삶 속에서의 향유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양할 수 있는 문화로서 문화 예술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라]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예술의 심미적 기능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통해 젊은이의 혼(또는 정신)을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감상자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미적 경험을 실현하는 예술은 실용성이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총동적이기 때문이다. [다]에서뱅크시는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겉치레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가]의 관점에서 [다]의뱅크시의 작품 전시와 판매 행위는 미적 체험을 통한 건전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반면 [나]의 관점에서 [다]의뱅크시의 행위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상징화 작업을 통해 감상자에 따라 다양한 심미적 경험과 유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의 좋은 문화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향유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양할 수 있는 문화이다. [다]에서뱅크시는 주체적인 작품 감상 능력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한 판단을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뱅크시의 행위는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의 개성 발견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좋은 문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와 관련한 문제를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물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3) 국가와 경제 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3-02]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와 같은 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Guzman and Stern(2020), “The State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 New Estimate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for 32 US States, 1988-2014,”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Vol.12, No.4, pp.212~243.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39쪽 관련.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99쪽 관련.

Bashir and Akhtar(2016), "The Role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 A Study of G20 Countries," *Management Studies and Economic Systems*, Vol.3, No.2, pp.91~100.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39쪽 관련.
-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99쪽 관련.

○ [나] : CB Insights 발표 자료(2021), <http://cbinsights.com>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6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39쪽 관련.

○ [다]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42쪽.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74쪽.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82쪽.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5쪽.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20쪽.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39쪽.

○ [라] : 『조선일보』, 2021. 9. 23.,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스타트업, 떡잎 되기도 전에 싹이 잘릴판」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82쪽 관련.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5쪽 관련.

『경향신문』, 2021. 9. 14., 「카카오·구글 등 빅테크 규제, 독점 폐해 막는 계기 돼야」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35쪽 관련.

『매일경제』, 2021. 8. 4., 「“대기업 끈대 피하려다 판교서 ‘젊은’ 만났네요”……스타트업 탈출하는 MZ세대」

-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74쪽 관련.

『머니투데이』, 2018. 8. 9., 「벤처 기업의 ‘지방 엑소더스’……“VC 찾아 서울로”」

-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79쪽 관련.

『한국경제신문』, 2020. 10. 20., 「벤처투자 풍년 속 제조벤처는 ‘찬밥’」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72쪽 관련.

- 구정화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95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제점을 모두 정확히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그래프 내용을 해석하여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의 표 내용을 해석하여 우리나라의 혁신 성공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최근 그 경향이 정체된 것이 경제 성장 둔화의 한 요인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30점)

[다]에 제시된 근거를 사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상황 1 :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혁신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독점 규제라는 두 가지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상황 2 : 기업의 조직 문화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특성상 관료제를 지양하고, 조직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는 탈관료제를 적극 도입해야 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상황 3 :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기업가 정신, 혁신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혁신의 성공 사례가 적고 정체되어 있으며, 잠재 성장을 역시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라]의 상황 1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혁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지 못하면 혁신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2는 스타트업의 성장 이후 관료적인 기업 문화가 들어오면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3은 최근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보여 준다.

[다]를 근거로 상황 1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돕는 동시에 소수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상황 2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탈관료제를 통해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상황 3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